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의 독서영역과 AASL의 21세기 학습자 기준 비교에 관한 연구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ISA Reading Domain and AASL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이 병 기(Byeong-Ki Lee)*

< 목 차 >

- | | |
|-----------------------------|---------------------------------------|
| I. 서 론 | 3. PISA의 설문지 분석 |
| II. 학교도서관의 책무성과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 IV. 학교도서관 책무성과 PISA 평가 영역 비교 |
| 1. 교육 책무성과 학교도서관의 책무성 | 1.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도서관 변인 |
| 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의 개요 | 2. AASL의 21세기 학습자 기준과 PISA 독서 리터러시 비교 |
| III. PISA의 평가도구 및 설문지 분석 | V. 결 론 |
| 1. PISA의 평가도구 | |
| 2. PISA의 독서 리터러시 | |

초 록

최근 들어, 공공기관의 책무성이 강화되면서 교육기관의 교육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교육 책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물론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지원을 받는 학교도서관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교육 책무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ISA의 독서영역과 AASL의 21세기 학습자 기준과 비교하여 학교도서관이 PISA의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PISA 2009의 독서 리터러시 영역과 PISA 설문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PISA의 설문지에는 학교도서관 관련 요소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며, PISA의 독서 리터러시 영역은 AASL의 21세기 학습자 기준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국제 학업성취도평가, 교육 책무성,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기준, 미국 학교도서관협의회

ABSTRACT

In recent years, strengthening educational accountability of school as the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emphasized. Thus, most countries perform national student assessments an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in order to prove the educational accountability. The school library supported by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no exception, school library has demanding the educational account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reading domain of PISA and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of AASL, it is to investigate that the school library contributes to PISA achievement. In this study were analyzed domain of PISA 2009 reading literacy and questionnaires. The results, PISA questionnaire contains a lot of elements in the school library and PISA is consistent with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of AASL.

Keywords: PISA, Educational accountability, School library, School library standard, AASL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교수(lisdoc@kongju.ac.kr)

• 접수일: 2012년 8월 28일 •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10일 • 최종심사일: 2012년 9월 21일

I. 서론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자신들이 실천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초·중등 학교교육에서도 교육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의 책무성은 학교교육의 공급자인 단위학교가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성장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평가하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책무성에는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 경영의 투명성, 건전한 인격 및 습관의 형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학교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학업성취도를 책무성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부터 모든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 책무성에 대한 지표로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¹⁾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학교교육의 결과와 그 변화 추이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하여 국가 교육의 책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는 OECD에서 주관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가 있다. PISA는 2000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이후 매 3년 간격으로 시행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로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독서능력, 수학적 소양, 과학적 소양 등을 평가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또한 초·중등학교에 소속된 기관으로써 교육 책무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교육 책무성 중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하고 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더 이상 그 존재 가치나 예산 투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이나 사서교사의 배치 여부가 교육 책무성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1993년에 Lance 등이 미국 콜로라도(Colorado) 주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이후 최근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²⁾

그러나 해당 국가의 교육 책무성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와 학교도서관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학교도서관이나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는 물론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학업성취도 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 책무성을 증명할 수 있는

1) 이상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와 DEA를 활용한 중학교 효율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0권, 제4호(2011. 11), p.2.

2) Keith C. Lance, L. Welborn and C. Hamilton-Pennell, *The Impact of School Library Media Centers on Academic Achievement*(Castlerock, Colorado : Hi Willow Research and Publishing, 1993), pp.1-25.

가장 좋은 방법이며,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PISA와 학교도서관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로는 시골지역 등 사회경제적 약자층의 학생들에게 학교도서관이 갖는 의미를 밝힌 Ruch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Ruch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텍스트의 독해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220%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학교도서관이 PISA 독서영역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³⁾

이에 본 연구에서는 PISA 평가 중 독서영역의 평가 내용과 설문지에 나타난 학교도서관 관련 요소를 분석하고, 학교도서관에서 수행해야 할 교육 서비스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AASL(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의 『21세기 학습자 기준(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과 비교·분석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책무성으로써 학교도서관이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21세기 학습자 기준』은 학교도서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어떠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교육 책무성의 지표라 할 수 있다.

PISA 평가는 2000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매 3년 간격으로 실시하는데,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를 어떤 영역과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가를 규정한 평가 기준(framework)을 발표한다. 평가 기준에는 독서·수학·과학소양을 직접 측정하는 필기시험과 학생들의 학습 태도나 인식 등 정서적 측면에 대한 설문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PISA 2009 평가기준 중 독서영역과 설문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II. 학교도서관의 책무성과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1. 교육 책무성과 학교도서관의 책무성

그 동안 교육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특별하게 취급한다거나 막연히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자율과 동시에 다른 기관과 경쟁해야 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존재의 가치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책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책무성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책임이나 의무를 지려는 성질이나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책무성은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책임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책무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3) Hermann Ruch, *The Benefits of School Libraries for Schools*, 2007.
<http://www.goethe.de/ins/lb/bei/pro/schoollibraries/Conference_Topics/Importance/hermann_ruch_importance.pdf>
[cited 2012. 7. 21].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3호)

이윤식은 Lessinger, Ferris, Bemelmans-Videc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책무성에 대해 “일련의 행위 주체의 목표(공식적·비공식적)에 대한 이행 여부를 다양한 관점(내부적·외부적, 수평적·수직적)에서 살펴보고, 이렇게 얻어진 정보를 통하여 공식적·비공식인 보상 혹은 처벌을 가하여, 궁극적으로 행위 주체의 관리, 능률성, 생산 및 민주성 등을 확보하여 미래지향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 정리하고 있다.⁴⁾ 또한, 신현석은 책무성을 “어떤 활동 영역이나 직책의 당사자가 주변으로부터 정신적·물리적으로 지원받은 정도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의 정도”라 정의하고 있다.⁵⁾ 이러한 공공기관의 책무성은 초·중등학교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육 수요자로부터 개방과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교육 책무성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교육 책무성은 공공기관의 책무성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 학교에서 학교의 설립 목적, 존재 이유에 맞도록 주어진 교육적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책임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학교교육의 책임을 말한다.⁶⁾ 이와 같이 교육 책무성은 교육의 공급자인 단위학교가 교육수요자에게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교육 활동에 대한 성과를 알려야 할 의무와 동시에 포상이든 예산 감축이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책무성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자율성과 동시에 책무성을 강조한 교육개혁법이 발효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2년에 연방법으로 발효된 낙오방지법(NCLB; No Child Left Behind Act)에 의거 모든 초·중등학교가 매년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평가에 의한 학업성취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서 책무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⁷⁾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부터 초등학교 3,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법에 의거 2010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교 수준에서 공개토록 하여 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⁸⁾

학교교육의 책무성은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직접적인 학업성적 외에도 인성이나 덕성, 바람직한 태도나 습관 형성, 봉사 및 체력 활동 등 매우 광범위하지만 학교교육의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학업성취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와 학교에서는 교육 책무성을 학업성취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의 책무성을 높인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책무성과 더불어 교육기관의 교육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도서관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이념이나

4) 이윤식, “평가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책무성 확보 방안,” 사회과학논총, 제8집(2006. 2), p.316.

5) 신현석, “단위학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안암교육학연구, 제8권, 제1호(2002. 4), p.94.

6) 정제영 등, “학업성취도에 기반한 교육의 책무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6권, 제1호(2009. 3), p.244.

7) Jean Donham, *Enhancing Teaching and Learning : A Leadership Guide for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s*, 2nd ed. (New York : Neal-Schuman Pub., 2008), pp.31-34.

8) 정제영 등, 전게서, pp.242-243.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나 문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나름 공통적인 견해를 공유하고 있지만 학교도서관의 책무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Todd가 2008년에 ‘사서교사를 위한 증거기반 선언’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논문에서 Todd는 학교도서관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더 이상 학교도서관은 존재할 수 없으며, 학교도서관이 있을 때의 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책무성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⁹⁾

첫째, 학교도서관이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에 기여할 것이며, 학습을 도와 줄 수 있는가?

둘째,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높은 학업성취도를 달성하고 있는가?

셋째, 학교도서관 즉, 학교도서관의 인프라, 인적자원, 자료 및 교수 과정이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가?

넷째,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 전파할 것이며,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또한, Moreillon은 책무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과교사와의 협력수업을 통한 독서와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실천을 들고 있다.¹⁰⁾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도서관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교과교사와의 협력수업 전개 여부, 사서교사의 배치 여부 등이 교육 책무성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Lance 등이 콜로라도주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협력수업을 수행한 초등학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표준독서점수가 21%이상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¹¹⁾ Miller 등이 미주리 주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 예산 및 사서교사 배치,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학교도서관 이용 정도 등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10.6%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¹²⁾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두 교육 책무성 특히, 학교도서관이 갖는 책무성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이 학업성취도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예산투입이나 사서교사의 배치, 협력수업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Ross Todd, "The Evidence-Based Manifesto for School Librarians," *School Library Journal*, Vol.54, No.4(April 2008), pp.38-43.

10) Judi Moreillon, *Co-teaching Reading Comprehension Strategies in Secondary School Libraries : Maximizing Your Impact* (Chicago : ALA, 2012), pp.xi-9.

11) Keith C. Lance and Marcia J. Rodney, *How School Librarians Help Kids Achieve Standards: The Second Colorado Study*(Denver, Colorado: Colorado Department of Education, 2000), pp.1-8.

12) Jamie Miller and Jinchang Want, *How School Library Media Center Services Impact Student Achievement* (Missouri : 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Missouri State Library, 2003), pp.3-4.

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의 개요

교육 책무성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학업성취도는 국가 수준에서의 평가뿐만 아니라 국제 수준에서의 평가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 수준에서 평가하는 학업성취도에 일정 수준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면 국제적인 교육 동향이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 참여하고 있다.

PISA는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약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하에 실시되고 있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를 말한다. PISA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이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내용을 단순히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는가에 그치지 않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¹³⁾ PISA는 2000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OECD 국가에서 의무 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비교 연구로 독서, 수학, 과학적 소양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PISA는 지금까지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에 걸쳐 모두 4차례에 걸쳐 시행한 바 있고, 2012년에 다시 주기가 돌아올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 1차 주기의 평가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국은 주기마다 차이가 있으나 70여 나라의 OECD 가입국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¹⁴⁾

PISA 평가는 3년 주기로 독서, 수학, 과학적 소양을 측정하되, 주영역과 보조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2000년에 시행된 PISA 1주기 평가에서는 독서가 주영역이고, 수학과 과학은 보조영역이었으며, 2003년과 2006년에 시행된 2주기와 3주기 평가에서는 수학과 과학이 각각 주영역이고 나머지 두 영역은 각각 보조영역이었다. 2009년에 시행한 PISA 평가에서는 다시 독서 영역이 주영역이고, 나머지 두 영역은 보조영역이었다.

PISA 평가에서는 독서, 수학, 과학 등의 학업성취도 측정에 그치지 않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이나 학습자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과정을 크게 교육 시스템, 교수 단위, 개별학습자로 구분하여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PISA 평가의 주요 평가 영역인 독서, 수학, 과학 분야는 'reading literacy, mathematics literacy, science literacy'와 같이 모두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교과지식을 측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쇼핑, 여행, 요리, 재산 관리, 정치적 문제 등

13) 한국교육개발원, PISA 2009 결과 및 시사점(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11), p.1.

14) 박영미 등,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평가(PISA)에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적 소양 수준 분석," 수학교육학연구, 제12권, 제2호(2002. 5), pp.291-311.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측정한다. 따라서 독서는 물론 수학이나 과학 영역도 문제해결이나 정보활용능력을 중시하는 학교도서관 교육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독서영역,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설문조사 항목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009년 평가에서 학교도서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독서영역이 주 평가 영역이었고, 2012년 5주기 평가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PISA 2009'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III. PISA의 평가도구 및 설문지 분석

1. PISA의 평가도구

PISA는 본 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참여 국가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한 평가도구(framework)를 개발, 공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검사를 수행한다. 이 평가도구에는 평가의 기본 구조는 물론 세부 평가 영역 및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현재 'PISA 2000-2009 framework' 등의 평가도구가 있으며, 그 중 본 연구에서는 'PISA 2009 framework(이하 평가도구)'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PISA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측정하기보다 실생활에 필요한 능력, 즉 지식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으로서의 리터러시(literacy)를 얼마나 갖추었느냐를 측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09 평가도구에 의하면 리터러시는 지식과 기능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학생들이 학교 및 학습 경험을 통해 습득한 독서·수학·과학적 지식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다.¹⁵⁾ 2009 평가도구에서 독서 리터러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지식과 잠재력을 계발하며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활용하고 성찰하며, 텍스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수학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수학이 세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 수학적 근거자료를 판단하는 능력, 건설적이고 사려 깊고 반성적인 시민으로서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방식으로 수학을 관련짓고 이용하는 능력'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학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과학과 관련된 논쟁에서 문제를 규명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과학 현상을 설명하고, 증거에 입각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학 지식의 이해와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인간의 지식 및 탐구의 한 형태로서 과학의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이라 규정하고 있다.¹⁶⁾

15) OECD, *PISA 2009 Assessment Framework-Key Competencies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Paris : OECD, 2009), p.9.

이와 같이 PISA의 주요 평가 영역을 독서, 수학, 과학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개개 교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측정하기보다 미래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즉, 리터러시를 얼마나 체득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리터러시의 개념을 단순히 문자를 읽고 해독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교도서관계의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과 같이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PISA의 독서 리터러시

PISA에서는 독서 리터러시를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핵심능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서 교육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독서는 매우 복잡한 정신과정으로서 광범위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PISA에서는 독서 리터러시에 대해 학생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하며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활용하고 성찰하며, 텍스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으로 규정하고, 독서 리터러시 측정을 위한 기본 구조를(그림 1)과 같이 상황 변인, 텍스트 변인, 양상 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1)에 제시한 PISA의 독서 영역 평가구조는 'PISA 2009'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하고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황 변인과 텍스트 변인, 양상 변인을 모두 고려해야 독서 리터러시를 갖추었다 말할 수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독서능력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상황 변인은 독서의 목적이나 독서 행동이 야기되는 맥락과 관련이 있다.

가. 상황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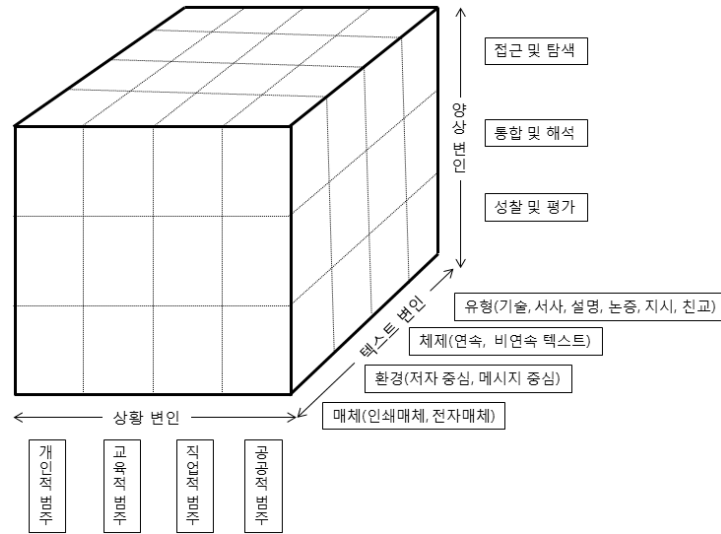
PISA에서는 상황 변인을 크게 개인적, 교육적, 직업적, 공적 범주 등 4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¹⁷⁾ 개인적 범주는 이론서이든 실무서이든 간에 개개인의 흥미나 관심사를 충족하는데 목적이 있는 독서를 말한다. 여가 혹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일부로서 개인적 범주에 속하는 텍스트로는 사적 편지, 소설, 전기, 호기심 충족을 위한 정보적 텍스트 등이 있다. 전자매체인 경우에는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일기 형식의 블로그 등의 전자독서활동이 포함된다.

교육적 범주는 말 그대로 교육 혹은 수업과 관련하여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 활동을 말한다. 교과서나 학습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독서능력이며, 학생들이 직접 독서자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교사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직업적 범주는 미래의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독서활동으로 인쇄된 신문의 광고, 작업 지침 등의 독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공적 범주

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2009) : 본 검사 시행보고서(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p.13, 21, 32.

17) OECD, *op. cit.*, pp.25-26.

는 사회적 관심사나 활동에 관한 텍스트 읽기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는 공공적 문서는 물론 공공 행사에 관한 텍스트가 포함된다. 전자자료인 경우에는 블로그, 뉴스 사이트, 전자 형식의 공지사항 등을 읽는 독서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그림 1〉 PISA 독서영역 측정을 위한 평가구조

나. 텍스트 변인

두 번째 변인으로서 텍스트는 학생들이 읽어야 할 독서자료에 관한 것으로 독서 리터러시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텍스트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PISA에서는 텍스트의 유형을 크게 매체(인쇄매체와 전자매체), 환경(저자중심, 메시지 중심), 체제(연속, 비연속), 유형(기술, 서사, 설명, 논증, 지시, 친교)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매체에 따라서 텍스트의 유형을 인쇄매체와 전자매체에 의한 독서활동을 구분하고 있다. 물리적인 속성상 순차적으로 열람하는 인쇄매체에 의한 독서자료와 비순차적 열람인 하이퍼텍스트의 성격을 갖는 디지털 자료의 텍스트를 독서 리터러시에 포함시키고 있다.

PISA에서는 저자중심환경의 텍스트와 메시지 중심의 텍스트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텍스트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인쇄매체 보다는 전자매체의 등장으로 야기된 구분으로 피드백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저자중심 텍스트라 하였고, 이메일, 블로그, 채팅 룸, 웹 포럼 및 리뷰, 웹 폼 등과 같이 독자가 내용을 추가 변경할 수 있는 환경을 메시지 중심의 텍스트라 명명하고 있다. 이는 전자매체의 등장으로 독서 환경이 달라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며, 디지털 독서가 새로운 독서 리터러시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ISA에서는 독서 리터러시에 속하는 텍스트 변인의 하나로 Kirsch와 Mosenthal의 연구를 수용하

여 연속적 텍스트와 비연속적 텍스트로 구분하고 있다.¹⁸⁾ 연속적 텍스트는 문장, 문단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독자들이 텍스트의 체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장, 절 등 계층적으로 구분하여 도식적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텍스트를 말한다. 연속적 텍스트는 이탤릭체, 고딕체 등 폰트나 폰트 사이즈, 첫째 둘째와 같은 순서 정보 등 텍스트 단위와 단위간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원인-결과(효과) 등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연속적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비연속적 텍스트는 리스트 혹은 시각적으로 표현된 독서자료로 연속적 텍스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다른 방식의 독서 방법을 요구한다. 비연속 텍스트로는 인쇄매체나 전자매체에 관계없이 리스트, 테이블, 그래프, 다이어그램, 광고, 일정표, 목록, 색인 및 서식 등이 있다.¹⁹⁾ 이와 같이 PISA에서는 독서자료의 영역을 연속적 텍스트에 한정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시각자료도 포괄하여 독서 리터러시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PISA에서는 Werlich의 연구를 바탕으로 독서 리터러시에 포함되는 텍스트의 유형을 기술, 서사, 설명, 논증, 지시, 친교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²⁰⁾ 텍스트의 유형은 텍스트의 내용 기술 방식이나 저자의 생산 의도에 따른 분류로써 기술은 어떤 대상의 속성을 기술한 텍스트로서 직감적, 인상적 기술은 물론 객관적 관찰의 관점에서 정보를 표현한 텍스트를 모두 포괄한다. 서사는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서술한 텍스트로서 이야기체의 글이 여기에 속한다. 서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텍스트로는 소설, 희곡, 전기, 코믹 스트립, 사건에 관한 신문 보고서 등이 있다.

설명(Exposition)은 복잡한 개념이나 정신적 구성 개념을 표현한 정보이다. 이 텍스트는 전체적인 의미의 관점에서 요소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텍스트이며, 정의, 해설, 요약, 해석 등이 모두 설명에 해당한다. 설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텍스트로는 학술 에세이, 다이어그램, 동향 그래프, 개념지도, 온라인 백과사전 항목 등이 있다. 논증은 개념 혹은 명제간의 관계를 표현한 텍스트로서 설득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를 취한다. 논증에 해당하는 텍스트의 대표적인 텍스트로는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 포스터 광고, 온라인 포럼 포스트, 북 혹은 영화에 대한 웹기반 리뷰 등이 있다.

지시는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명령하는 형태의 텍스트이다. 지시는 일을 완수하기 위한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텍스트로 규칙, 규정, 법령, 요리법, 소프트웨어 매뉴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친교(Transaction) 형태의 텍스트는 모임 혹은 사회적 조직체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사적, 친교적인 목적으로 쓰여진 글을 말한다.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이 널리 보급되기 전에는 편지, 구술대화, 전화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블로그, 커뮤니티, 트위터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PISA의 독서 리터러시에 해당하는 변인 중 텍스트 변인은 독서 리터

18) Irwin Kirsch, and P. B. Mosenthal, "Exploring Document Literacy : Variables Underlying the Performance of Young Adults,"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25, No.4(1990. Win.), pp.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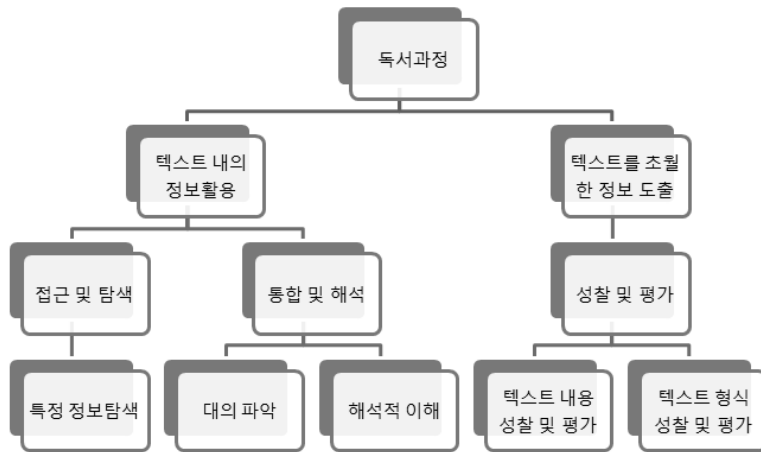
19) OECD, *op. cit.*, pp.27-31.

20) Egon Werlich, *A Text grammar of English*(Heidelberg : Quelle and Meyer, 1976), pp.15-20.

러시에 해당하는 독서자료의 범위와 관련이 있으며, 인쇄매체와 전자매체, 저자 중심의 텍스트와 메시지 중심의 텍스트, 연속 텍스트와 비연속 텍스트, 기술·서사·설명·논증 등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서 리터러시를 갖추기 위해서는 텍스트 변인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 텍스트에 익숙해야 하며, 독서교육 담당교사의 관점에서 보면 특정 유형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교육하지 말고 모든 유형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 양상 변인

독서 리터러시와 관련된 세 번째 변인으로서 양상(aspects) 변인은 실제로 책을 읽은 정신적, 인지과정을 말한다. 양상 변인은 앞서 언급한 변인 중에서 특정 상황 즉, 특정의 독서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텍스트 변인을 대상으로 독서자료를 선정하고 나서 머릿속에서 작용하는 과정이다. 독서의 목적과 다양한 텍스트 외에 어떤 인지과정을 거쳐야 독서 리터러시를 갖추었다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PISA에서는 <그림 2>와 같이 특정 정보탐색, 대의 파악, 해석적 이해, 텍스트 내용 성찰 및 평가, 텍스트 형식 성찰 및 평가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²¹⁾ 다만, 5가지의 인지과정에 해당하는 독서 리터러시를 모두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PISA에서는 접근 및 탐색, 통합 및 해석, 성찰 및 평가로 범주화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그림 2> PISA 독서영역에 제시된 인지적 과정 요인

독서 리터러시의 양상 변인 중 첫 번째 요인으로서의 접근 및 탐색은 텍스트의 전체 보다는 텍스트 내의 특정 부분에 초점을 둔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텍스트 전체를 열람하기 보다는 특정 목적에 따라서 전체 정보 공간 중에서 특정 정보의 위치를 확인하고, 특정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텍

21) OECD, *op. cit.*, p.35.

트를 읽는 경우가 많다. 도서의 목차나 권말 색인을 통해 필요한 정보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전화번호부에서 필요한 전화번호를 찾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 정보의 탐색은 페이지, 목차 혹은 리스트, 텍스트 구조 등의 단서를 통해 텍스트 내에서 주인공, 장소, 시간, 배경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독서 기능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정보 공간 중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의 위치를 확인하는 접근 과정과 필요한 정보를 선정하는 탐색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매체의 경우에는 링크된 웹페이지에서 적합한 정보를 클릭, 선정하거나 검색엔진의 탐색결과로부터 적합성을 판단하고, 적합한 정보를 선정하는 행위 또한 특정 정보의 확인에 해당한다.

독서 리터러시의 양상 변인 중 두 번째 요인으로서의 통합 및 해석은 텍스트의 내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통합과 해석은 모두 대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의 파악은 메인 토픽 혹은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텍스트의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제목붙이기, 지시 순서 설명, 그래프 혹은 테이블의 주 범주 확인, 스토리의 주인공 및 배경 묘사, 주제 파악, 지도와 도표의 용도 설명 등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진다. 대의를 파악한 이후에는 심층적,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통합은 개개 문장 혹은 인접 문장 간의 응집력을 이해하고, 여러 문단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유사 점 차이점을 확인하거나 원인/결과 등 텍스트의 연결 구조를 파악하여 의미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해석은 텍스트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는 명시적이지 않은 관계를 파악하거나 문장 혹은 어구의 함축적 의미를 추론하는 것을 요구한다. 텍스트의 해석을 위해서는 독자들이 텍스트의 부분과 부분간의 관계 추론, 중심생각 요약, 핵심 요소와 주변요소 식별, 일반적 서술과 구체적 사례 찾기 등의 행위가 가능해야 하며, PISA에서는 독서 리터러시의 일환으로 이러한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전통적인 인쇄매체의 경우에 통합의 과정은 단일 문단이나 여러 문단 혹은 섹션,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텍스트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자매체의 경우에 통합은 하이퍼링크를 통해 비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며, 통합의 과정에 도움이 되는 도구(동시화면 보기나 다중 프레임 등)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전자매체에서 통합과 해석은 인쇄매체의 독서와 같이 비교, 대조, 증거 찾기, 추론 등의 과정이 수반되지만 그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서핑하고, 다른 사이트로부터 정보를 조합하거나 단일 페이지에서 정보를 추론해야 하는 등의 활동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서 리터러시의 양상 변인 중 세 번째 요인으로 성찰과 평가는 텍스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자신의 개념 및 경험구조를 연결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넘어서 지식, 아이디어, 태도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성찰은 텍스트의 내용과 자신의 지식 및 경험을 비교, 대조, 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평가는 텍스트를 초월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성찰과 평가는 크게 2가지 요소 즉,

텍스트 내용에 대한 성찰과 평가와 텍스트 형식에 대한 성찰과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성찰과 평가는 텍스트내의 정보와 텍스트 밖의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텍스트에 있는 정보를 독자의 배경지식에 연결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텍스트가 주장하는 것을 자신의 지식, 다른 글, 질문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 비추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 지식으로부터 자신의 관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정보간의 관계를 평가하거나 도덕적·미적 기준에 기초하여 정보를 비교하거나 저자의 논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보를 찾거나 텍스트에 충분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활동이 이에 속한다.

텍스트의 형식에 대한 성찰과 평가는 텍스트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것의 질과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구조, 텍스트의 장르, 어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목적에 맞는 글 선택하기, 저자가 사용한 특징 평가하기, 저자의 문제, 목적 태도를 찾거나 논평하는 등의 활동이 이에 속한다.²²⁾

성찰과 평가는 인쇄매체나 전자매체에서 모두 필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전자매체의 경우에 평가는 다른 측면이 있다. 인쇄매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저자, 출판사 등 객관성과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나 전자매체의 경우에는 보통 이러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 질과 신뢰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의 비판적 분석은 인쇄매체에서도 필요하지만 온라인 정보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웹상의 잘못된 정보에 쉽게 휩쓸리고, 객관성이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략도 갖고 있지 않다.²³⁾ 이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PISA에서는 적합성, 진실성, 권위에 근거하여 적절한 사이트를 선택하고, 저작성, 신뢰성, 진실성, 의존성 등을 바탕으로 사이트 혹은 링크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3. PISA의 설문지 분석

PISA 평가에서는 독서, 수학, 과학 리터러시 등 기본 소양을 측정하는 지필검사 외에 리터러시에 영향을 주는 교육환경 및 교육적 맥락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설문지는 학교 설문지, 학생 설문지, 학부모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 설문지와 학생 설문지의 문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 설문지의 주요 영역과 문항 수 및 주요 설문 문항을 소개하면 <표 1>과 같다.²⁴⁾

22) 권미숙,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국어과 평가 문항 연구: PISA 읽기 문항 분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33권, 제1호 (2005. 3), pp.417-443.

23) Donald J. Leu and Julie Castek, *What Skills and Strategies are Characteristic of Accomplished Users of the Internet?* (San Francisco, CA :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2006), pp.5-10.

24) OECD Home page, <<http://www.oecd.org/pisa/>> [cited 2012. 7.25].

〈표 1〉 PISA 학교 설문지

영역	문항수	설문문항
학교의 구조와 조직	5	1. 학년 범위, 2. 학교구분(국공립 혹은 사립), 3. 교육예산의 재원 유형, 4. 지역사회 인구분포, 5. 학생들의 주변 학교 선택권
학생과 교사의 특성	4	6. 학생수(남/여), 7. 유급학생 비율, 8. 이민학생의 비율, 9. 교사수(자격/무자격, 정규/기간제)
학교의 교육자원	2	10. 교육용컴퓨터의 비율(1개 학년 학생수, 교육용 컴퓨터수,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수) 11. 수업에 지장을 주는 교육자원의 정도(자질있는 과학교사의 부족, 자질있는 수학교사의 부족, 자질있는 국어교사의 부족, 그 외 자질있는 교사의 부족, 도서관 직원의 부족, 기타 지원 인력의 부족, 과학 실험 장비의 부족, 수업자료의 부족, 교육용 컴퓨터의 부족, 인터넷 접속 컴퓨터의 부족,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부족, 도서관자료의 부족, 시청각 자료의 부족)
학교의 수업, 교육과정, 평가	5	12. 능력별 학급(집단) 편성, 13. 교과 외 활동(밴드 합창단, 연극반, 독서 논술반, 지역사회 도서관과의 협력 활동 등), 14. 이민 학생 지원활동, 15. 평가 방법의 수행 정도(표준화 검사, 교사 제작 검사, 교사 판단에 의한 검사, 학생 포트폴리오, 학생의 과제/프로젝트), 16. 목적에 따른 평가의 정도(학부모에게 학생의 성취 정도 통보, 수업을 위한 반 편성, 교사의 효과 평가 등)
학교의 분위기	2	17. 학습에 지장을 주는 학생/교사 요인의 정도(학생들의 장기결석, 학생과 교사의 원만하지 않는 관계, 학생의 수업 방해 등), 18. 학부모의 기대(학업 성취에 대한 학부모의 압력 등)
학교의 정책과 실무	7	19. 학교 입학 시 고려 요소(거주 지역, 성적 등), 20. 타 학교 전학의 사유(성적, 학생 행동 등), 21.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정도, 22. 학업성취도 활용 정도, 23. 국어교사의 교수 활동 평가 정도, 24. 정책 영역별 책임성 소재(교사임용, 예산, 교과서 선정 등), 25. 의사결정의 주체(교직원 구성, 예산, 수업내용 평가)
학교장의 특징	1	26. 학교장의 역할과 리더십의 정도(수업 참관, 교육과정 조정 등)
응답자 정보	1	27. 성별(남/녀)
도서관	3	28. 도서관 유무, 29. 학교도서관 보유 장서 수, 30. 도서관활용수업의 정도
합 계	30	

※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항목은 진한체로 표기함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ISA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설문지는 학교의 구조와 조직, 학생과 교사의 특성, 학교의 교육자원 등 9개 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의 교육자원’ 항목을 보면 수업에 지장을 주는 교육자원의 정도를 묻고 있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학교도서관 전문 직원의 충족 여부, 도서관 자료의 확충 정도, 시청각 자료의 확충 정도 등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수업, 교육과정, 평가’ 영역을 보면 연극반, 독서 논술반, 지역사회 도서관과의 협력 활동 등 교과 외의 활동에 관한 질문과 학생 포트폴리오, 학생의 과제·프로젝트 등 수업 및 평가 방법에 대해 묻고 있다. ‘도서관’ 영역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설치 유무, 학교도서관 보유 장서 수, 도서관활용수업의 정도에 대해 묻고 있다.

이와 같이 PISA의 학교 설문지에는 학교도서관의 인프라 구축은 물론 학교도서관의 자원을 교육 활동에 활용하고 있는가를 묻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PISA의 설문 항목에 학교도서관 관련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학교도서관의 설치 유무, 전문 직원의 배치, 도서관활용수업의 정도 등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대상 설문지 외에 학생 설문지의 주요 영역과 문항 수, 주요 설문 문항을 소개하면 〈표 2〉와 같다.²⁵⁾

25) OECD Home page, <http://www.oecd.org/pisa/> [cited 2012. 7. 25].

〈표 2〉 PISA 학생 설문지

영역	문항수	설문문항
응답자 정보	5	1. 해당학년, 2. 학교구분(중학교, 고등학교), 3. 생년월일, 4. 성별, 5. 유치원 경력, 5. 초등학교 입학 나이
가족과 가정	16	6. 동거 가족, 7. 어머니(직업, 직장 내 직위), 9. 어머니 교육수준, 10. 어머니 최종 학력, 11. 어머니 직업의 형태, 12. 아버지(직업, 직장 내 직위), 13. 아버지의 교육수준, 14. 아버지의 최종 학력, 15. 아버지 직업의 형태, 16. 학생과 부모님의 출생 국가, 17. 한국으로 이주한 나이, 18. 주요 사용 언어, 19. 학습 자료 가정 소장 유무(고전문학, 시집, 학습용 참고도서, 사전 등), 20. 생활 용품 소장(TV, 전화, 컴퓨터 등), 21. 장서의 가정 소장 정도
독서활동	5	22. 취미 독서의 1일 평균 시간, 23. 독서 행태별 정도(나는 필요한 경우에만 독서한다, 나의취미는 독서다, 다른 사람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책을 끝까지 읽는다, 나는 선물로 책을 받으면 기쁘다, 나에게 독서는 시간 낭비다, 나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을 즐긴다, 나는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만 독서를 한다, 나는 몇 분 이상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지 못한다, 나는 입을 책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친구와 책을 바꿔 보는 것을 좋아한다), 24. 자료 유형별 독서의 정도(잡지, 만화, 소설류, 비소설류, 신문), 25. 인터넷 독서의 빈도(이메일, 채팅, 온라인 뉴스, 온라인 사진, 특정 주제 탐색, 온라인 토론, 실용적인 정보탐색), 26. 유형별 학습 활동의 빈도(텍스트 내용을 암기한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가능한 세부적인 내용을 암기하려고 한다, 이전에 다른 과목에서 배웠던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연관 지으려고 한다, 암송할 때 까지 텍스트를 여러 번 읽는다,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는다, 정보가 학교 밖에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생각한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개념이 어느 것인지 파악한다, 자료를 나의 경험과 연관 지음으로써 더욱 잘 이해하려고 한다, 텍스트의 요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텍스트의 정보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파악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확실히 알기 위해서 추가 정보를 찾아본다)
학습 시간	5	27. 1교시 당 수업 시간, 28. 과목당 주당 수업 시수, 29. 주당 정규 수업 시간, 30. 종류별 방과 후 수업 참여 여부, 31. 주당 방과 후 수업 참여 시간
학급과 학교 분위기	2	32. 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유용성, 33. 교사에 대한 인식
국어 수업	4	34. 국어 수업 시간의 참여 학생 수, 35. 국어 수업 시간의 환경, 36. 국어 수업 시간의 상황, 37. 국어 수업 시간의 활동
도서관	2	38. 유형별 도서관 방문 빈도(독서가 좋아서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한다, 학교 공부를 위해서 책을 빌린다, 숙제/과제/보고서를 작성한다, 잡지 또는 신문을 읽는다, 도서관 내에서 책을 읽는다, 스포츠/음악 등 교과와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 배운다, 인터넷을 사용한다), 39. 학교도서관의 유무
텍스트 독서 전략	2	40. 독서전략(텍스트 중에서 이해하기 쉬운 부분에 집중한다, 텍스트를 빠르게 두 번 읽는다, 텍스트를 읽은 후에 다른 사람과 그 내용에 대해 토론한다, 텍스트의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는다, 텍스트를 자신의 말로 요약한다, 텍스트를 다른 사람에게 소리 내어 읽어준다), 41. 요약 전략(글로 요약한 후 각 문단의 내용이 글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가능한 한 많은 문장을 정확하게 옮겨 적는다, 요약하기 전에 가능한 한 여러 번 텍스트를 읽는다,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사실들이 요약한 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문장들에 밑줄을 그으면서 텍스트를 읽은 후 자신의 글로 요약한다)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 경험	5	42. 초등학교 시절 결석 정도, 43. 중학교 시절 결석 정도, 44. 초등학교 중 전학 유무, 45. 중학교 재학 중 전학 여부, 46. 대학교 진학 여부
ICT에 대한 친숙도 및 활용도	10	47. 전자 기기 보유 여부, 48. 전자 기기 학교 보유 여부, 49. 컴퓨터 사용 경험, 50. 가정에서의 컴퓨터 활용 목적, 51. 가정에서의 유형별 컴퓨터 활용 빈도, 52. 학교에서의 컴퓨터 활용 목적, 53. 학교에서의 유형별 컴퓨터 활용 빈도, 54. 유형별 컴퓨터 활용능력, 55. 수업 외의 컴퓨터 활용 시간, 56. 컴퓨터 활용의 가치에 대한 인식
사교육	2	57. 최근 2년 동안의 사교육 경험, 58. 과목별 사교육의 정도
합 계	58	

※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항목은 진한체로 표기함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ISA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용 설문지는 응답자 정보, 가족과 가정, 도서관, 독서전략 등 11개 영역, 총 5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독서활동’ 영역을 보면, 1일 평균 시간, 독서 행태별 정도, 자료 유형별 독서의 정도, 인터넷 독서의 빈도, 유형별 학습 활동의 빈도 등 학생들의 독서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묻고 있다. 특히, 단순한 독서의 빈도나 양도 중요하지만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정도나 독서를 통한 학습 활동 등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영역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유무와 동시에 학교도서관을 방문하는 목적을 ‘독서가 좋아서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한다’, ‘학교 공부를 위해서 책을 빌린다’, ‘숙제/과제/보고서를 작성한다’ 등으로 구분하여 학교도서관에서 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텍스트 독서전략’ 영역에서는 책을 읽는 방법과 관련된 독서전략과 요약 전략에 대해 묻고 있다.

그 외에 ‘ICT에 대한 친숙도 및 활용도’ 영역에서는 학교에서의 컴퓨터 활용 목적, 학교에서의 유형별 컴퓨터 활용 빈도, 유형별 컴퓨터 활용능력, 수업 외의 컴퓨터 활용 시간, 컴퓨터 활용의 가치에 대한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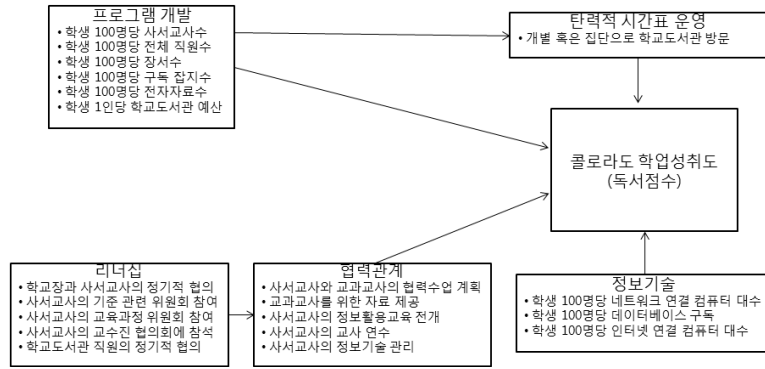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ISA 학교 설문지나 학생 설문지에서 학교도서관의 설치 유무나 교육적 활용 방식, 학생들의 독서량이나 빈도, 독서 태도, 독서 전략의 적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으며, PISA 설문지에 이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학교도서관이 리더러시 등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IV. 학교도서관 책무성과 PISA 평가 영역 비교

1.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도서관 변인

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학교도서관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학교도서관을 설치, 운영했을 때, 혹은 어떠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Lance 등이 콜로라도 주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Lance 등은 〈그림 3〉과 같이 학업성취도 특히, 독서점수에 영향을 끼치는 학교도서관 변인을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리더십, 협력관계, 탄력적 시간표 운영, 정보기술 등 5가지로 설명하고 있다.²⁶⁾

26) Keith C. Lance and Marcia J. Rodney, *How School Librarians Help Kids Achieve Standards: The Second Colorado Study*(Denver, Colorado : Colorado Department of Education, 2000), pp.1-8.



〈그림 3〉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도서관 변인 관계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변인을 5가지로 구분하여 PISA의 학교 설문지와 학생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도서관 관련 요소를 상호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PISA 설문지와 학교도서관 변인의 비교

구분	설문 영역	설문 문항	학교도서관 변인
학교용	학교의 교육자원	11. 수업에 지장을 주는 교육자원의 정도	프로그램 개발, 정보기술
	학교의 수업, 교육과정, 평가	13. 교과 외 활동(밴드 합창단, 연극반, 독서 논술반, 지역사회 도서관과의 협력 활동 등), 15. 평가 방법의 수행 정도(표준화 검사, 교사 제작 검사, 교사 판단에 의한 검사, 학생 포트폴리오, 학생의 과제/프로젝트)	리더십, 협력관계
	학교장의 특징	26. 학교장의 역할과 리더십의 정도((수업 참관, 교육과정 조정 등)	리더십, 협력관계
	도서관	28. 도서관 유무, 29. 학교도서관 보유 장서 수, 30. 도서관 활용 수업의 정도	프로그램 개발, 협력관계, 탄력적 시간표 운영
학생용	독서활동	22. 취미 독서의 1일 평균 시간, 23. 독서 형태별 정도(자료 유형별 독서의 정도(잡지, 만화, 소설류, 비소설류, 신문), 25. 인터넷 독서의 빈도, 26. 유형별 학습 활동의 빈도	협력관계
	도서관	38. 유형별 도서관 방문 빈도 39. 학교도서관의 유무	프로그램 개발
	텍스트 독서 전략	40. 독서전략, 41. 요약 전략	협력관계
	ICT에 대한 친숙도 및 활용도	52. 학교에서의 컴퓨터 활용 목적, 53. 학교에서의 유형별 컴퓨터 활용 빈도, 54. 유형별 컴퓨터 활용능력, 55. 수업 외의 컴퓨터 활용 시간, 56. 컴퓨터 활용의 가치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 개발, 정보기술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 변인의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기술’은 주로 학교도서관의 인프라에 관한 것으로, 이는 PISA 학교 설문지의 ‘학교의 교육자원’, ‘도서관’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학생 설문지의 ‘도서관’ 및 ‘ICT에 대한 친숙도 및 활용도’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학교도서관의 학업 성취도 관련 변인 중 ‘리더십’은 사서교사가 학교장은 물론 각종 교육관련 협의회에 참여하여 정보

자료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을 선도해야 할 교육 책무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PISA 학교 설문지의 '학교의 수업, 교육과정, 평가' 및 '학교장의 특징'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학교도서관의 학업성취도 관련 변인 중 '협력관계'는 사서교사가 독서와 정보활용교육을 전개하되,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협력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전개하는 일종의 협력수업에 관한 것으로 PISA 학교 설문지의 '학교의 수업, 교육과정, 평가', '학교장의 특징'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학생용 설문지의 '독서활동', '텍스트 독서전략' 등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변인들은 PISA 평가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학교 및 학생용 설문지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PISA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교육 책무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PISA 평가에서 직·간접적으로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설문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역할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설문 항목별로 PISA의 학업성취도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교육 책무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AASL의 21세기 학습자 기준과 PISA 독서 리터러시 비교

미국 도서관협회(ALA) 산하 기구인 AASL(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학교도서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교육철학이나 시대적 요구 사항을 탄력적으로 수용하여 학교도서관의 이념이나 핵심 가치 등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담아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학교도서관계의 핵심가치나 운영 가이드라인으로서 널리 인용되고 있는 기준으로는 1998년에 AASL에서 발행한 「Information Power」가 있다. 이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전반적인 이념과 가치는 '학생 학습을 위한 정보활용능력 기준(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 for student learning)'에 두고 있다.²⁷⁾ 그 후 AASL에서는 2007년에 「21세기 학습자 기준(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²⁸⁾을 제정하여 이전의 기준을 대체하였다. 「21세기 학습자 기준」은 학교도서관을 통한 학습의 2가지 핵심적 접근 즉, 독서와 탐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독서와 탐구가 학습자의 학습능력을 어떻게 신장시켜 줄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1세기 학습자 기준」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의 4대 기준과 4대 기준마다 기능, 성향, 책임감, 자기평가 전략 요소로 구분하여 세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27)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s for Learning*(Chicago and London: AASL: AECT, 1998), pp.8-43.

28) AASL,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AASL: Chicago, 2007), [cited 2012. 7. 21].
(http://www.ala.org/ala/mgrps/divs/aasl/guidelinesandstandards/learningstandards/AASL_LearningStandards.pdf).

그 중에서 ‘기능’은 조직화된 행동 형태로서 어떤 일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독서나 탐구능력,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21세기 학습자 기준』의 4대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기능’ 요소와 PISA의 학업성취도 중 독서 리터러시에 관한 영역을 상호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의 상황변인은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독서의 목적에 대한 것으로 P(personal)는 개인적 범주, E(educational)는 교육적 범주, O(occupational)는 직업적 범주, P(public)는 공공적 범주를 의미한다. 텍스트 변인은 독서자료나 읽을거리와 관련된 것으로 M(media)은 인쇄 혹은 전자매체를, E(environmental)는 저자 중심의 텍스트와 메시지 중심의 텍스트 환경을, F(format)는 연속 텍스트와 비연속 텍스트 등의 체제를, T(type)는 기술, 서사, 논증 등 텍스트의 구조나 유형을 말한다. 그리고 양상 변인의 A(access)는 접근 및 탐색, I(integrate and interprets)는 통합 및 해석, R(reflective and evaluative)은 성찰 및 평가를 각각 의미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SL의 『21세기 학습자 기준』에는 PISA 평가에서 설정하고 있는 독서 리터러시의 3대 요소 즉, 상황 변인, 텍스트 변인, 양상 변인에 해당하는 요소가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독서 리터러시의 상황 변인을 살펴보면 『21세기 학습자 기준』에는 개인적 범주, 교육적 범주, 공공적 범주에 해당하는 요소를 두루 언급하고 있으나 PISA의 독서 리터러시에서 설정하고 있는 직업적 범주에 해당하는 요소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ISA의 독서 리터러시에서 직업적 범주에 해당하는 상황 변인을 설정함으로써 청소년 시기에 미래의 직업을 탐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직업과 관련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도서관계에서도 직업적 범주에 해당하는 상황 변인을 고려하여 독서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4> AASL의 21세기 학습자 기준과 PISA 독서 리터러시의 영역 비교

AASL의 21세기 학습자 기준	PISA 독서 리터러시											
	상황 변인			텍스트 변인				양상 변인				
	P	E	O	P	M	E	F	T	A	I	R	
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며, 지식을 습득한다.												
1.1 각 교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지식의 습득은 탐구과정과 동일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 세계와 연결 지을 수 있다.		√										√
1.2 새로운 학습을 위한 맥락(상황)으로써 선행 지식 및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										√
1.3 새로운 이해를 위한 탐구의 근간으로서 연구 과제의 범위를 설정하고, 수정할 수 있다.		√								√		
1.4 연구과제 해결에 필요한 적합한 정보자료를 탐색, 선정, 평가할 수 있다.		√			√					√	√	
1.5 정확성, 효용성, 정보요구에 대한 적합성, 중요성, 사회 문화적 맥락성 등을 바탕으로 정보자료의 내용을 분석, 평가할 수 있다.										√		√
1.6 추론 및 의미 해석을 위해서 다양한 형식(텍스트, 시각자료, 미디어, 디지털 등)의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다.					√		√				√	

2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3호)

1.7 오류, 핵심 아이디어와 주변 아이디어의 확인, 쟁점 및 관점, 편견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자료로부터 추출한 정보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다.									√	√	√
1.8 정보기술을 마스터하여 정보탐색과 탐구활동에 활용한다.		√			√		√				√
1.9 광범위하고 심층적인이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			√				√
② 결론 도출 및 의사결정, 새로운 상황에서의 지식 적용 및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											
2.1 새로운 이해, 결론 도출,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해 비판적 사고 기능(분석, 종합, 평가, 조직)을 지식과 정보에 적용하여 탐구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								√	√
2.2 지식을 조직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											√
2.3 정보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교과, 실생활 및 기타의 탐구과제에 적용할 수 있다.	√	√	√	√							√
2.4 정보 분석과 조직화를 위해서 정보기술 및 여타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	√	√					
2.5 아이디어 교환, 새로운 이해, 의사결정,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
2.6 새롭게 이해한 내용을 표현한 결과물로 창출하기 위해서 작문 과정, 매체 및 시각정보 리터러시, 정보기술 리터러시를 활용할 수 있다.				√	√		√		√		√
③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식을 공유하고, 윤리적 생산적으로 사회에 참여한다.		√				√					√
3.1 새롭게 이해한 부분을 공유하고, 학습 자체에 대해 반성해 봄으로써 탐구과정을 완결 짓는다.		√									√
3.2 학습자의 사회적, 지적 네트워크 공동체에 참여하고, 협력한다.		√		√	√	√	√				√
3.3 새롭게 이해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하기, 쓰기 기능을 적용한다.											√
3.4 다른 사람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을 조직, 표현하는데 있어 정보기술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			√	√	√			√		√
3.5 학습 활동을 공동체의 이슈와 연결할 수 있다.		√		√							√
3.6 정보와 정보기술을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게 이용한다.				√			√				√
④ 개인적, 심미적 성장을 추구한다.	√								√	√	√
4.1 개인적 성장과 즐거움을 위해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다.	√										√
4.2 자기 자신은 물론, 세상 그리고 과거의 독서 경험을 상호 연결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유창하게 독서를 할 수 있다.	√										√
4.3 다양한 매체와 장르의 지적 표현물과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	√	√					√
4.4 다양한 매체와 장르의 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를 개인적인 학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		√	√	√					√
4.5 새로운 아이디어와 자신의 경험 및 사전 지식을 연계 지을 수 있다.	√										√
4.6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식을 조직화할 수 있다.	√									√	√
4.7 정보수집과 공유를 위해서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	√	√	√				√
4.8 자신의 학습 결과물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창의적이고, 심미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

※ P: 개인적 범주, E: 교육적 범주, O: 직업적 범주, P: 공공적 범주, M: 매체, E: 환경, F: 체제, T: 유형, A: 접근 및 탐색, I: 통합 및 해석, R: 성찰 및 평가

둘째로 독서자료 혹은 읽을거리의 다양성과 관련된 텍스트 변인을 살펴보면 『21세기 학습자 기준』에는 PISA의 독서 리터러시에서 설정하고 있는 4가지 변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독서자료의 범위를 문자나 인쇄 형태의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시각자료와 디지털 자료도 독서자료의 범위에 포함시

김으로써 PISA의 독서 리터러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체와 환경, 체제 요소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다만, 『21세기 학습자 기준』에서는 독서자료의 내용과 형식적 구조에 따른 텍스트의 유형 즉, 기술, 서사, 설명, 논증, 지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거의 대부분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는 소설과 논증에 의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논설문,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설명문 등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나 해석이 달라지기기 때문에 『21세기 학습자 기준』 등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독자들이 특정 상황 변인에서 특정 텍스트 변인을 선정하여 독서를 수행하는 정신적 작용으로서 양상 변인을 살펴보면, PISA의 독서 리터러시나 『21세기 학습자 기준』 모두 접근 및 탐색, 통합 및 해석, 성찰 및 평가 요소를 두루 언급하고 있다. 다만, 접근 및 탐색 요소를 보면 『21세기 학습자 기준』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자료를 도서관이나 인터넷 등에서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PISA 독서 리터러시의 양상 변인에서는 주어진 자료나 텍스트 내에서 특정 정보를 다루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디지털 자료의 급증으로 적절한 키워드와 탐색전략을 적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고, 찾아낸 정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PISA의 평가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SL의 『21세기 학습자 기준』은 학생들이 학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핵심능력을 길러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PISA의 독서 리터러시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요소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 학습자 기준』은 학교도서관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를 제시한 지표라 할 수 있다. 『21세기 학습자 기준』과 PISA 독서 리터러시의 연관성은 학교도서관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를 보여 줄 수 있을 때 학교도서관의 책무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공공기관 특히, 초·중등학교는 교육이라는 거시적인 목적에 문혀 막연히 신성시하고,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다소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성과 동시에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책무성을 다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나 학교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초·중등 교육기관에 소속된 학교도서관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학교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사서교사를 배치했을 때 어떠한 성과나 효과가 있는가를 증명하라는 교육 책무성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다. 교육 책무성에는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 경영의 투명성, 건전한 인격 및 습관의 형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학교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학교교육의 결과와 그 변화 추이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함으로써 교육의 책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 참여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이나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이 PISA 평가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고, PISA 평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 책무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며,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ISA 평가에 나타난 학교도서관 관련 요소를 분석하고, 학교도서관 교육 서비스의 책무성을 밝히고 있는 AASL(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의 『21세기 학습자 기준』과 비교·분석하여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PISA 평가는 독서·수학·과학적 리터러시를 직접 측정하는 필기시험과 학생들의 학습 태도나 인식 등 정서적 측면에 대한 설문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PISA 2009 평가 영역 중 독서 리터러시와 설문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PISA 평가도구를 분석하고, AASL 기준과 비교·분석한 결과 그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ISA 평가는 3년 주기로 독서, 수학, 과학적 소양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개개 교과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생활 중심의 문제해결능력이나 사고력 측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21세기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능력으로서의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있으며, 통합교과 혹은 범교과적 접근을 지향함으로써 AASL의 『21세기 학습자 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둘째, PISA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서 리터러시는 상황 변인, 텍스트 변인, 양상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상황 변인은 독서의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개인적, 교육적, 직업적, 공공적 범주 등 4개로 구분하고 있다. 텍스트 변인은 학생들이 읽어야 할 독서자료에 관한 것으로 매체(인쇄 매체와 전자매체), 환경(저자중심, 메시지 중심), 체제(연속, 비연속), 유형(기술, 서사, 설명, 논증, 지시, 친교)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양상 변인은 실제로 책을 읽은 정신적, 인지과정으로 PISA에서는 접근 및 탐색, 통합 및 해석, 성찰 및 평가 등 3가지로 범주화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셋째, PISA의 학업성취도 평가 중 독서 리터러시에 관한 영역과 AASL의 『21세기 학습자 기준』을 비교한 결과, 『21세기 학습자 기준』에는 독서 리터러시의 3대 요소 즉, 상황 변인, 텍스트 변인, 양상 변인에 해당하는 요소가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다만, 『21세기 학습자 기준』은 PISA 독서 리터러시의 상황 변인 중 직업적 범주를 다루지 않고 있으며, 텍스트 변인 중 독서자료의 내용과 형식적 구조에 따른 텍스트의 유형 즉, 기술, 서사, 설명, 논증, 지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추후 학교도서관계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독서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PISA의 학교용 설문지나 학생용 설문지에서 학교도서관의 설치 유무나 교육적 활용 방식, 학생들의 독서량이나 빈도, 독서 태도, 독서 전략의 적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으며, PISA 설문지에 이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학교도서관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21세기 학습자 기준』은 학교도서관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를 제시한 지표라는 관점에서 볼 때, PISA 독서 리터러시와의 연관성은 학교도서관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책무성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PISA 평가를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이 PISA 평가는 학교도서관 관련 기준과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학교도서관의 설치, 유무나 장서의 수준, 사서교사의 배치 및 사서교사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따라서 PISA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여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 책무성을 증명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이미 PISA 홈페이지에서는 PISA 점수를 공개하고 있으며, PISA 점수에 영향을 주는 교육적 맥락(설문 문항)의 원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PISA의 교육적 맥락 특히, 학교도서관에 대한 설문 항목이 PISA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 통계 분석은 차후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권미숙.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국어과 평가 문항 연구: PISA 읽기 문항 분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33권, 제1호(2005. 3), pp.417-443.
- 박영미 등.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평가(PISA)에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적 소양 수준 분석.” *수학교육학연구*, 제12권, 제2호(2002. 5), pp.291-311.
- 신현식. “단위학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안암교육학연구*, 제8권, 제1호(2002. 4), p.94.
- 이상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와 DEA를 활용한 중학교 효율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0권, 제4호(2011), pp.1-27.
- 이윤식. “평가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책무성 확보 방안.” *사회과학논총*, 제8집(2006. 2), pp.311-334.
- 정제영 등. “학업성취도에 기반한 교육의 책무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6권, 제1호(2009. 3), pp.241-26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2009) : 본 검사 시행보고서.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 한국교육개발원. PISA 2009 결과 및 시사점.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11.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s for Learning*. Chicago and London: AASL & AECT, 1998.
- AASL. *Standards for the 21st-Century Learner*. AASL : Chicago, 2007.
- Donham, Jean. *Enhancing Teaching and Learning : A Leadership Guide for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s*. 2nd ed. New York : Neal-Schuman Pub., 2008.
- Kirsch, Irwin, and P. B. Mosenthal. "Exploring Document Literacy : Variables Underlying the Performance of Young Adults."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25, No.4(1990. Win.), pp.5-30.
- Lance, K. Curry, L. Welborn, and C. Hamilton-Pennell. *The Impact of School Library Media Centers on Academic Achievement*. Castlerock, Colorado : Hi Willow Research and Publishing, 1993.
- Lance, K. Curry and Marcia J. Rodney. *How School Librarians Help Kids Achieve Standards: The Second Colorado Study*. Denver, Colorado: Colorado Department of Education, 2000.
- Leu, Donald J. and Julie Castek. *What Skills and Strategies are Characteristic of Accomplished Users of the Internet?* San Francisco, CA :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2006.
- Miller, Jamie and Want, Jinchang. *How School Library Media Center Services Impact Student Achievement*. Missouri : 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Missouri State Library, 2003.
- Moreillon, Judi. *Co-teaching Reading Comprehension Strategies in Secondary School Libraries : Maximizing Your Impact*. Chicago : ALA, 2012.
- Ruch, Hermann. *The Benefits of School Libraries for Schools*, 2007.
<http://www.goethe.de/ins/lb/bei/pro/schoollibraries/Conference_Topics/Importance/hermann_ruch_importance.pdf> [cited 2012. 7. 21].
- OECD. *PISA 2009 Assessment Framework-Key Competencies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Paris : OECD, 2009.
- OECD Home page. <<http://www.oecd.org/pisa/>> [cited 2012. 7. 25].
- Todd, Ross. "The Evidence-Based Manifesto for School Librarians." *School Library Journal*, Vol.54, No.4(April 2008), pp.38-43.
- Werlich, Egon. *A Text grammar of English*. Heidelberg : Quelle and Meyer, 1976.